

대학생의 학업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추적연구 : 유연성요인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이 해 리**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요인들과 위험요인이 대학 신입생들의 학업과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입생들은 유연성요인이 높고 위험수준은 낮은 집단, 유연성요인이 높고 위험수준도 높은 집단, 위험수준은 낮지만 유연성요인도 낮은 집단, 위험수준이 높으면서 유연성요인은 낮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대학적응의 심리·정서적 적응지표로서 다면인성검사 측정치를 분석하고 학업적 적응지표로서 4학기 동안의 누적평점의 평균을 비교하였으며, 대학환경 적응지표로서 재학 및 학업중단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학이나 학업중단의 비율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업적 적응에 있어서는 누적평점 평균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정서적 적응에서는 MMPI의 Mf 척도를 제외한 모든 타당도척도 및 임상척도와 대학 생활적응척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검토되었다.

주제어 : 유연성, 유연성요인, 위험요인, 대학생활, 심리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

* 본 연구는 2009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나사렛대학교 교수

I. 서론

유연성(resilience)¹⁾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해나가는 능력’으로서,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조직화하며 적응적인 행동들을 산출함으로써 위험요인과 성공적 적응 사이를 중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연성을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긍정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유연성의 역할에 주목해왔다(이해리, 2007a, 2007b, 2008; 장휘숙, 2001; Constantine & Benard, 2001;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Masten, 2001; Olsson, Bond, Burns, Vella-Brodrick, & Sawyer, 2003; Revich & Schatté, 2003; Rutter, 1999). 유연성의 이러한 역할은 발달상의 불리함과 위험요인에 처해있는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이 위험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가를 역점을 두어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외상과 충격 가운데에서도 스스로의 가치와 행복을 증진하도록 돕는 예방적 혹은 치료적 중재전략을 개발하는 데도 유용하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Seligman, 2002).

이러한 유연성 연구는 주로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위험조건에서도 유연한 적응을 가능케 하는 보호요인들 즉 유연성요인들²⁾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왔다. 열악하고 빈곤한 환경(Werner & Smith, 1982), 사회경제적 불이익이나 반사회적 위험(Rutter, 1979; Werner & Smith, 1982, 1992), 부모의 정신병(Masten & Coatsworth, 1998), 학대(Heller, Larrieu, D'Impero, & Boris, 1999; McGloin & Widom, 2001), 도시 빈곤과 폭력(Luthar, 1999; Richters & Martinez, 1993), 만성질환이나 파국적인 생의 사건들(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mezy, & Ramirez, 1999)과 같은 많은 위험조건들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위험상황에서 덜 적응적인 사람들과 건강한 적응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보호요인들에 대한 탐색이라고

1) ‘resilience’는 ‘유연성’, ‘적응유연성’, ‘탄력성’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탄력성’이 물리적이고 공학적인 현상을 연상시키고 ‘적응유연성’은 ‘적응결과’와 그 의미가 중첩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으로 번역하였다.

2) 유연성요인(resilience factor)은 유연성 연구들에서 유연한 적응을 용이하게 해주는 보호요인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개인 내적 요인들과 외적 보호요인들이 탐색되어왔다.

할 수 있다. 초기의 노력들은 주로 유연성이 있는 아동들의 개인적 특질들 즉 자율성이나 높은 자존감 등에 제한되었으나 점차 유연성이 아동의 외적 요인들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이 인식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뒤이은 연구들은 유연성 발달에 관련된 가족 특성들과 좀 더 넓은 범위의 사회환경 특성들을 탐색하였다(Constantine & Benard, 2001; Criss, Pettie, Bates, Dodge, & Lapp, 2002; Dumont & Provost: 1999; King & Furrow, 2004; O'Donnell, Schwab-Stone, & Muyeed, 2002; Smith: 2003).

이해리와 조한익(2005, 2006)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되어온 유연성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개인내적 요인들과 외적 보호요인들로 구분하여 비교, 검토해왔다.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적 요인들이 포함되었고, 외적 보호요인으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요인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인지적 요인들 중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오랫동안 연구자의 관심을 받아왔다. Revich와 Schatté(2002), Rutter (1987) 등은 역경과 관련된 심리적 위험들에서 버티어낼 수 있도록 돕는 자기효능감의 보호적 기능을 밝혔다. '문제해결 능력'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그리고 융통성 있게 사고하고, 대안들을 시도해보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Herman-Stahl과 Petersen (1996)은 유연한 청소년들이 문제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처 양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김태호와 김재환, 2004에서 재인용), Dumont와 Provost(1999)도 유연한 사람들이 문제 집중적 대처전략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정서적 요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반영하는 '공감과 수용'도 여러 연구자들(Constantine & Benard, 2001; Luthar, 1993; Revich & Schatté: 2002)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며, Block과 Kremen (1996)은 유연한 남·여 대학생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동정적이고 풍부한 정서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감정 및 충동조절 능력'은 Revich와 Schatté(2002), Robins, John, Moffitt, Stouthamer-Loeber(1996)이 유연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이고 정서표출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Shiner, Masten과 Tellegen(2002)이 종단연구에서 성인기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와 통제가 아동기 성격으로부터 예언될 수 있었으며, 낮은 통제가 아동기와 현재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됨을 발견함으로써 이 요인의 중요성을 뒷받침하였다.

의지적 요인으로는 Werner(1995)의 연구 이래, Revich와 Schatté(2002), Oshio 등(2003), 김택호와 김재환(2004) 등에서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가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

영적 요인에서는 개인적 삶의 의미와 목적, 경험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추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 왔다. 여러 실증적인 연구들에서 생의 의미가 건 강한 성격과 관련되며(Day & Rottinghaus, 2003),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감소시키는 심리치료 효과를 증대시키며(Gelso & Woodhouse, 2003), 진로 및 직업 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avickas, 2003).

‘종교적 영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종교활동과 지지체제에 포함된 개인들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보다 더 잘 적응하고 덜 우울하며, 덜 불안하고 약물남용 문제를 덜 가진다고 보고하였다(Gartner, Larson, & Allen, 1991). 또 영성을 종교적 믿음과 신앙심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본 연구들은 이 요인들이 중요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ogensneider, 1996). Connor와 Davidson(2003)은 일반인 집단과 정신과 집단을 비교하고서 유연성 척도 CD-RISC에 영적 영향력을 5개 요인 중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국내에서는 박지아와 유성경(2003)도 유연성요인으로서 영성을 탐색하였고 이해리와 조한익(2005)도 청소년유연성척도 개발 연구에서 종교적 영성이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외적 보호요인들로서는 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또래 관계에서의 보호요인들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Werner와 Smith(1992)는 30년간의 종단연구에서 온화한 어머니의 양육이 유연한 청소년들의 중요한 보호요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온정과 격려, 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와 돌봄, 자녀에 대한 믿음과 기대 등이 청소년들에게 빈곤이나 장애, 실패 등의 높은 위험요인이 주는 효과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밝혀주었다(유성경과 심혜원, 2002; 이은미, 2001; Constantine & Benard, 2001; 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nezy, & Ramirez, 1999; O'Donnel et al., 2002; Rutter, 1987). 1,000명 이상의 5살짜리 쌍생아들의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화함과 자극적인 활동들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노출된 아동들의 긍정적 적응을 증진 시킴을 밝혀주었다(Kim-Cohen, Moffitt, Caspi, & Taylor, 2004). Constantine과 Benard(2001)는 가족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를 포함한 가족 간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위험

요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긍정적 관심과 돌봄이 있는 학교가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Rutter(1987)가 교사의 긍정적 영향과 학교 활동의 의미 있는 참여를 탐색한 연구와, O'Donnell 등(2002)이 학교의 지지 요인 및 학교에서의 학업적, 비학업적 성공경험이 지역사회 폭력에 노출되었던 아동들의 유연성과 유의미하게 정적 관련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들에서 지지되었다. 지역사회의 지지적인 관심과 도움은 비차별적이며 지원적인 교회나 복지관, 멘토(mentor)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데, Werner (1995), Constantine과 Benard(2001)는 지역사회의 돌봄과 기대가 빈곤과 결손가정, 반사회적 비행 등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버티어주고 저항하게 해주는, 대리 보호자나 후견인처럼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ing과 Furrow(2004)는 신앙공동체 활동 참여가 의미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최윤정 등(2004)도 빈곤청소년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활동이 청소년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과 기대에 잘 부응하는 친사회적인 교우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소외와 이탈, 학업중단, 혹은 반사회적 비행집단에의 동일시 등의 여러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해줄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유연하게 하고 중요한 발달과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왔다(Criss, et al., 2002; Dumont & Provost, 1999; Werner, 1995).

유연성연구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왔지만, 청소년후기에서 성년초기 사이 과도기에 처한 대학생들에게도 특징적인 발달과업과 함께 새로운 대학환경은 이들에게 더욱 유연한 적응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대학 내 적성과 진로, 학업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공통적인 스트레스 경험 가운데서도 일부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소외와 우울과 불안, 자살사고, 학업중단의 고민 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왔다(김은정, 1992). 일반적으로 적응이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 등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 내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포함하여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자기정체성과 자존감, 심리적 균형과 정서적 안정을 포괄하는 심리·정서적 적응.

둘째,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학업적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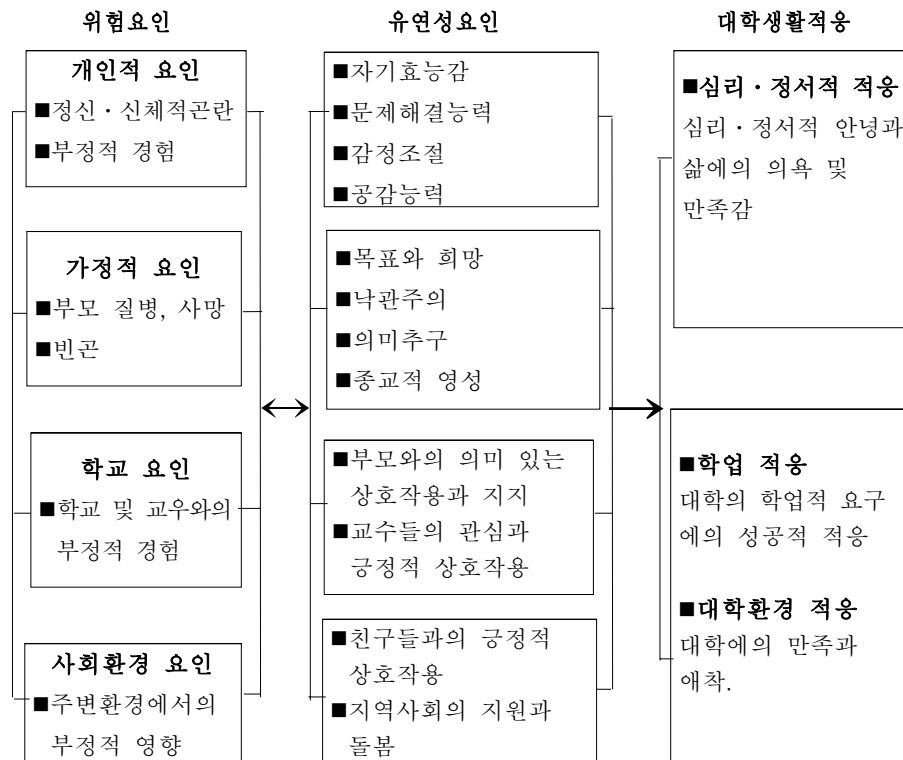
셋째, 대학사회 안의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교우 및 기타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사회적 적응.

넷째,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 및 만족도를 나타내는 대학환경에의 적응(Baker & Siryk, 1984).

한편, 아동, 청소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의 유연한 적응과 관련되는 다양한 개인내적, 외적 보호요인들이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중재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박현진(1996)의 연구에서는 높은 유연성요인을 보인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고 덜 우울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연성요인이 낮은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며 스트레스에 보다 정서적으로 대응하며 더 우울하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자기존중감과 통제력, 스트레스 대처방식(김은정(1992; 양현정, 2003; 최송미,1999), 독립성과 사교성, 자율성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유능성(박한샘, 2003)이 대학생생활적응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되었다. 온정과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지지의 매개 하에서 대학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었다(이보라, 김미애, 이기학, 2005). 자기효능감과 낙관적 사고(Chemers, Hu, & Garcia, 2001), 자기지각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김은정, 이정윤, 오경자, 1992), 외향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Halamandaris & Power, 1999)도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과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의미있게 예측해준다고 보고되었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학생 시기가 심리적 독립과 분리의 과제를 요구하지만 부모와의 애착은 오히려 대학생의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왔다. 예컨대 적응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더 지지적이고 보살피주는 방식으로 자녀들의 대학생활에 관여하고 있으며 적응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은 부모가 냉정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r & Siryk, 1984). 또 부모와의 애착수준은 대학생의 학업적응과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및 대학만족도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과 심리적 안녕이 높고 대학생활에 만족도가 높았다(조수진, 2000; 최은실, 2001; Kennedy & Donaldson, 1991; Lapsley, 1990).

위와 같이 유연성요인이 위험요인의 부정 영향을 완충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한다는 모델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이다. 즉 대학생들이 경험하

는 위험조건들에서 유연성요인은 위험요인이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여 심리·정서적 차원 및 학업과 대학환경 차원에서 보다 잘 적응케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적 기능을 하는 유연성요인들과 적응적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요인과 위험요인의 수준에 따라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이 어떻게 예측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대학 신입생들의 집단을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유연성요인이 높고 위험수준은 낮은 집단(집단1), 유연성요인이 높고 위험요인도 높은 집단(집단2), 위험수준은 낮지만 유연성요인도 낮은 집단(집단3), 위험수준이 높으면서 유연성요인은 낮은 집단(집단4). 그리고 세 가지의 대학생활적응 지표를 선택하였는데, 먼저 심리·정서적 적응 지표로서 개인의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심리·정서적 특성들을 나타내주는 다면인성검사(MMPI) 측정치를 살펴보았다. 이는 개인내적 정서들을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수량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척도 외에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둘째로는 학업적 적응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학업성적을 검토하였는데 신입생들이 입학하면서부터 4학기 동안의 누적평점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셋째로는 대학환경에의 적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학업을 지속하는지 혹은 중단하였는지의 재학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재학, 휴학(입대휴학, 일반휴학, 질병휴학 포함), 자퇴의 세 조건을 비교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충청 지역의 A 대학교에 2006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41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경찰행정학과 72명, 재활학과 70명, 디자인학과 20명, 사회복지학과 163명을 포함한 5개 학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학생이 140명이었고 여학생은 275명이었다. 입학 직후 이들에게 대학생유연성요인척도와 위험척도를 실시하였으며, 6개월 후에 MMPI-2를 실시하였다. 4학기 후에 누적평점이 표집되었으며, 이 때 재학 혹은 학업 중단의 여부가 함께 조사되었다.

2. 연구 도구

1) 대학생 유연성요인 척도

이해리와 조한익(2005, 2006)이 개발, 타당화한 한국청소년유연성척도를 대학생에 맞게 문항을 수정, 변경한 척도이다. 개인내적요인(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적요인)과 외적 보호요인(부모, 교수, 친구, 지역사회요인)의 총 8개 하위 요인별로 6문항 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청소년유연성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유연성요인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1$ 로 나타났다.

2) 위험 척도

이해리(2007a, 2008)가 구성한 위험 척도를 대학생에 적합하도록 문항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였다. 총 3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위험요인이나 부적 경험 등 개인적 곤란,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사망이나 사고, 양육 결함, 경제적 결핍 등 가정적 위험요인, 학교나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부정적 영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들이 기술하고 있는 사건들이 신입생들의 적응과 발달에 미칠 영향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차별적인 가중치를 주었으며, 참여자들은 각 문항들에 대해 '경험하지 않음' 혹은 '경험함'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험요인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lpha = .79$ 이었다.

3) 다면인성검사(MMPI)

미네소타대학에서 개발된 이래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타당성과 임상적 유용성이 널리 입증된 질문지형 성격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2005년도에 새로운 규준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MMPI-2를 사용하였다. 총 567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L, F, K의 3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척도 즉 Hy(건강염려증), D(우울증), Hy(히스테리), Pd(반사회성), Mf(남성성, 여성성), Pa(편집증), Pt(강박증),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 Si(내향성)와 함께 내용척도 중의 하나인 대학생활적응척도를 분석하였다.

3. 절차 및 자료 분석

2006년도 신입생 중 41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먼저 유연성요인과 위험점수에서 각기 평균을 중심으로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유연성요인이 높고 위험수준이 낮은 집단1, 유연성요인이 높고 위험수준 또한 높은 집단2, 유연성요인이 낮고 위험

수준도 낮은 집단3, 유연성요인이 낮고 위험수준은 높은 집단4로 명명하였다. 적응지표로는 먼저 재학율은 재적 상태에 따라 재학, 휴학(군입대, 일반휴학, 질병휴학 포함), 자퇴의 세 조건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업성적은 2006년 1학기부터 2007년 2학기까지의 4개 학기의 누적평점을 분석하였다. 심리정서적 적응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MMPI 척도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다. 자료 분석은 chi-square 검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먼저 본 연구 대상으로 포함된 대학 신입생들의 남:여 성비가 약 1:2의 편향된 비율³⁾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녀 간에 유연성요인과 위험요인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1). 그 결과 남녀 집단 간에 유연성요인과 위험요인 모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유연성요인, $F = 1.06, p = .31$; 위험요인, $F = .23, p = .63$).

<표 1> 남녀신입생들의 유연성요인과 위험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남	유연성요인	198.81	26.41	140
	위험요인	8.40	6.81	
여	유연성요인	201.35	22.50	275
	위험요인	8.04	7.42	
F	유연성요인	1.06		
	위험요인	0.23		

다음으로 각 집단별 유연성요인과 위험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3) 이 학교의 전체 신입생의 남 : 여 성비 역시 약 1:2인 것으로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표 2> 집단별 유연성요인과 위험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집단1	유연성요인	218.14	12.76	137
	위험요인	3.77	2.47	
집단2	유연성요인	219.57	14.45	76
	위험요인	16.02	7.70	
집단3	유연성요인	181.87	13.91	114
	위험요인	3.50	2.65	
집단4	유연성요인	180.64	18.94	88
	위험요인	14.17	5.26	
F	유연성요인	219.33***		
	위험요인	213.09***		

*** p<.0001

<표 2>의 평균값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집단1과 집단2는 집단3과 집단4에 비하여 유연성요인이 유의하게 높으며(F = 219.33, p<.0001), 집단2와 집단4는 집단1과 집단3에 비하여 위험요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있다(F = 213.09, p<.0001). 집단2는 유연성요인에 있어서는 집단1과 큰 차이가 없으나 위험수준에 있어서는 집단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고 실제로 모든 집단 중에서도 위험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집단별 재학율에 대한 차이 검증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χ^2 검증 결과, 집단들 간에 재학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집단1과 집단2가 비교적 높은 재학율을 보이고, 집단3과 집단4가 낮은 재학율을 보이는 경향성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집단별 재학율 차이검증

	재학	휴학	지퇴	전체
집단1	88(37.0%)	43(28.1%)	6(25.0%)	137(33.0%)
집단2	43(18.1%)	28(18.3%)	5(20.8%)	76(18.35)
집단3	61(25.6%)	45(29.4%)	8(33.3%)	114(27.5%)
집단4	46(19.3%)	37(24.2%)	5(20.8%)	88(21.2%)
전체	238(100.0%)	153(100.0%)	24(100.0%)	415(100.0%)
χ^2	4.65			

유연성요인과 위험요인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변량 분석의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집단별 누적평점 평균 및 변량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집단1	3.36	.68	137
집단2	3.28	.71	76
집단3	3.11	1.07	114
집단4	3.05	.755	88
F	3.17 *		
Scheffé 사후검증	집단1 > 집단4		

* p<.05

변량분석 결과 집단 간에 누적평점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한 결과, 집단1이 집단4보다 유의하게 학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학업성적은 집단1 > 집단2 > 집단3 > 집단4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심리·정서적 적응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MMPI의 평균점수와 변량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집단별 MMPI 평균 및 변량분석 결과

	집단1 (N=137)	집단2 (N=76)	집단3 (N=114)	집단4 (N=88)	F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L	48.14(8.49) ^a	44.12(7.21) ^a	45.89(7.97) ^b	41.64(8.42) ^{ab}	12.34 ^{**}
F	41.31(5.05) ^a	45.18(7.50) ^a	44.77(6.43) ^{ab}	47.97(7.52) ^{ab}	19.76 ^{**}
K	49.89(8.90) ^a	46.03(8.72) ^a	47.43(7.33) ^b	42.20(6.56) ^{ab}	16.97 ^{**}
Hs	44.80(6.29) ^a	47.83(7.43) ^a	45.26(6.60)	47.63(7.11) ^a	5.04 ^{**}
D	42.54(8.08) ^a	41.68(7.16) ^b	47.44(9.99) ^{ab}	47.41(9.18) ^{ab}	13.00 ^{**}
Hy	45.16(6.04) ^a	48.33(6.62) ^a	45.61(6.54)	47.44(8.29)	4.73 ^{**}
Pd	41.19(5.36) ^a	46.21(8.19) ^a	43.88(7.60) ^{ab}	47.22(9.07) ^{ab}	14.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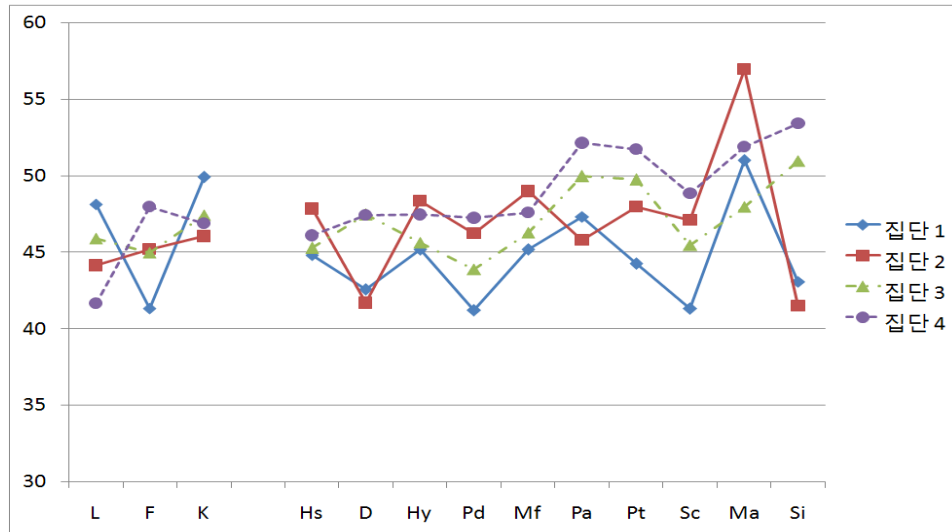
	집단1 (N=137)	집단2 (N=76)	집단3 (N=114)	집단4 (N=88)	F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Mf	45.15(9.48)	48.97(11.65)	46.26(10.36)	47.58(10.81)	2.49
Pa	47.32(7.43) ^a	45.78(5.91) ^a	49.96(7.98) ^b	52.13(9.69) ^{ab}	14.17 ^{**}
Pt	44.23(8.21) ^a	47.96(9.70)	49.74(10.53) ^a	51.72(10.33) ^a	12.62 ^{**}
Sc	41.30(5.74) ^a	47.09(8.64) ^a	45.46(7.28) ^{ab}	48.82(8.50) ^{ab}	21.52 ^{**}
Ma	50.98(8.75) ^a	56.96(10.53) ^{ab}	47.97(8.70) ^{bc}	51.89(10.28) ^{bc}	14.03 ^{**}
Si	43.06(10.46) ^a	41.50(10.41) ^b	50.95(11.70) ^{ab}	53.41(11.01) ^{ab}	27.42 ^{**}
대학생활 적응척도	43.34(9.55) ^a	49.08(11.23) ^{ab}	49.93(9.95) ^{ac}	55.72(10.20) ^{abc}	27.48 ^{**}

** p<.01

주. 영문 윗첨자는 Scheffé 검중에 의해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표 5〉에 의하면 남성성/여성성(Mf) 척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척도가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타당도척도에서는 F > K > L 척도의 순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집단1이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면들을 강하게 부인하고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잘 순응하고 있다고 나타내는 반면, 집단4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2는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집단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상척도에서는 남성성/여성성(Mf)은 집단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이 척도가 병리적 특징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 간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임상척도는 Si(내향성) > Sc(정신분열증) > Pd(반사회성) > Pa(편집증) > Ma(경조증) > D(우울증) > Pt(강박증)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별로 MMPI 평균 프로파일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집단별 MMPI 평균 프로파일의 비교

[그림 2]를 살펴보면 유연성요인이 높은 집단1과 집단2의 경우 공통적으로 9 peak 혹은 9 - 5(6) code type을 보이는 반면, 유연성요인이 낮은 집단3과 집단4는 공통적으로 0 - 7(6)의 code type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당도척도에서도 유연성요인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요인과 위협요인이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정서적 적응과 학업적응 및 대학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입생들은 유연성요인이 높고 실제 경험한 위협수준은 낮은 집단1, 유연성요인이 높고 실제로 위협요인도 많이 경험한 집단2, 위협수준은 낮지만 유연성요인도 낮은 집단3, 위협수준이 높으면서 유연성요인은 낮은 집단4로 구분되었다. 대학적응의 심리·정서적 적응지표로서 다면인성검사 측정치를 분석하고 학업적 적응지표로서 4학기 동안의

누적평점의 평균을 비교하였으며, 대학환경 적응지표로서 재학 및 학업중단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네 집단 간에 재학이나 학업중단의 비율에 있어서는 유연성요인이 높은 집단의 재학율이 높은 경향성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유연성요인이나 위험요인이 재학율을 의미있게 예측해주는 변인이 되지 못한다는 가능성과 함께,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지방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다시피 중도 학업 중단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적 적응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누적평점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1 > 집단2 > 집단3 > 집단4 순의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유연성요인이 높은 대학생들이 대학의 학업적 요구에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유연성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심리·정서적 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Mf 척도를 제외한 모든 타당도척도와 임상척도,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들이 발견되었다.

집단 간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임상척도들을 살펴보면 먼저 Si(내향성)척도는 집단4 > 집단3 > 집단1 > 집단2의 순으로 높았는데 이는 Sc나 D와 같은 척도의 동반상승을 고려할 때에 더 잘 이해되어진다. 즉 집단1과 집단2는 모두 낮은 Si와 D, Sc 경향을 보임으로써 이들이 현실적인 대학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잘 적응하며 활발한 대인관계 경향성을 갖는 반면에, 집단3과 집단4는 Si의 상승과 함께 D와 Sc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승함으로써 사회적 상황에서 다소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d 척도는 긍정적 측면으로는 주장성이나 진취성을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나 규범에 대한 저항이나 자기중심성, 충동성 등을 나타내는데, 위험수준이 낮은 집단1과 집단3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이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사회적 규범과 권위에 순응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집단2의 경우 Pd 척도점수가 집단3보다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Hs - Hy 척도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적절한 자기주장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Pa 척도는 집단1과 집단2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데 반해 집단3

과 집단4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유연성요인이 낮은 집단들이 대인관계에서의 예민성과 피해의식을 가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Ma 척도에서는 집단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이는 집단 내 다른 척도들과 비교하여서도 정점을 이루는 척도가 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낙관적이고 의욕적이며 활동적임을 시사해준다. 이는 낙관적인 개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적응이 더 우월해진다는 연구결과(Fry, 1995)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D 척도를 보면 위험요인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유연성요인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집단1과 집단2가 거의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반면에 집단3과 집단4가 거의 유사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조는 유연성요인이 자기 만족감과 낙관주의와 같은 긍정적 정서에 관련된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Pt 척도는 불안과 긴장, 우유부단 등을 나타내주는데, 집단4 > 집단3 > 집단2 > 집단1의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집단2는 집단1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유연성요인이 낮은 두 집단의 경우 집단1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이들이 비교적 높은 심리적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개별 척도들의 비교에서나 프로파일 양상의 비교에서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높은 유연성요인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력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낮은 유연성수준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으며 우울과 불안, 긴장 등의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동일하게 유연성요인이 높은 집단1과 집단2를 비교했을 때에도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집단1의 경우 네 집단 가운데서 가장 방어적인 타당도척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가장 낮은 프로파일 상승도를 보이고 또한 내용척도인 대학생활적응척도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대학에서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집단2의 경우 타당도척도에서 뚜렷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평균프로파일에 가장 가까운 상승도를 보이고 있고, 대학생활적응척도에서도 집단1보다는 높지만 집단4보다는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약간의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정서적 동요를 인정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적응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이러한 결과들은 유사한 패턴의 프로파일을 형성하

는 주요인이 위험요인이 아니라 유연성요인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심리·정서적 적응에 위험요인보다 유연성요인이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위험은 적게 경험하고 유연성요인이 높으면서 우수한 학업적응을 보이고 심리정서적으로는 방어적이고 순응적이지만 안정된 집단1을 '유능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험을 많이 경험했지만 유연성요인 또한 높아서 좋은 학업적응과 함께 활기차고 적극적인 심리정서적 적응을 보이는 집단 2는 '유연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위험수준이 높지 않지만 유연성요인이 낮아서 학업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심리정서적으로도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집단 3은 부적응집단으로, 위험수준이 높으면서 유연성요인은 낮아서 학업적응이 가장 떨어지고 심리정서적으로도 불안, 예민성, 우울과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저하 등을 보이는 집단4는 취약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자가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한 선행연구 결과들(2007a, 2007b, 2008)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유연한 청소년들은 위험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정신건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학교생활적응은 다소 영향을 받긴 하지만 덜 유연한 집단에 비하여서는 월등한 적응수준을 유지하고, 외부사회와의 적극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유연성요인의 보호적 - 안정화(강화)의 기능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유연성요인이 낮은 청소년들은 위험수준이 높아지면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에서의 위협을 받게 되고, 학교생활적응이 크게 떨어지게 되며, 친사회적 행동 역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유연성요인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위협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초기에도 진입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Garnezy(1991)와 Luthar와 Zigler(1991)의 주장과 같이 유연한 개인들이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부정적 정서가 전혀 없는 강인한 사람들이 아니라 좌절시키는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뎌내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이라는 새롭고 도전적인 환경에 처한 개인들에게 유연성요인을 높이도록 개입하는 것이 위험요인의 부적 효과를 상쇄하고 긍정적 적응을 유지하도록 돕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말해준다. 예방적 수준에서는 개인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 혹은 교양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개인내적 보호요인들을 함양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개입은 대학 환경이 보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것으로 경험되도록 대학생들이 소속하고 의미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구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유연성요인과 위험요인이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생집단에까지 확대하여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확인, 검증한 데에 있다고 하겠다. 높은 유연성요인의 대학생들은 위험수준이 높더라도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활발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누릴 수 있었고 학업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 그러나 위험수준이 낮더라도 유연성요인이 낮은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에 부적응적이었으며 위험수준은 높으면서 유연성요인이 모두 낮은 대학생들은 가장 취약한 개인들로 드러났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2년 간의 추적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의 부적 효과를 완화하는 유연성요인의 보호적 역할을 횡단적으로 살펴보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유연성’의 개념 문제인데 학계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유연성을 적응결과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유연한 적응을 가능케 하는 과정 혹은 보호요인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험상황에서도 유연한 적응을 가능케 하는 개인내적, 외적 보호요인을 포괄, 지칭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계적 분석의 한계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사용한 변량분석으로는 인과관계의 추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을 통해 보다 타당한 인과관계 추론과 유연성요인의 역할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요인이 대학생들의 추후 진로와 생애발달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간에 있어서도 좀 더 장기적으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다차원적인 적응지표들을 보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제8권, pp. 85-114.
- 김택호, 김재환(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호, pp. 465-490.
- 박한샘(2004). 사회적 유능성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 연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pp. 55-83.
- 박현진(1996). 자이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현정(2003). 대학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 작용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성경 ·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제16호, pp. 189-206.
- 이보라, 김미애, 이기학(2005). 외향성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2권 제1호, pp. 99-112.
- 이은미(2001).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이탄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해리, 조한익(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제16호, pp. 161-206.
- 이해리, 조한익(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호, pp. 353-371.
- 이해리(2007a). 의지적, 영적 유연성이 고 위험요인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8권 제1호, pp. 317-332.
- 이해리(2007b). 위험요인과 유연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제15권 제1호, pp. 51-66.
- 이해리(2008).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긍정적 적응: 유연성 역할에 대한 사례 연구. 상담학연구, 제9권 제2호, pp. 689-707.
- 장휘숙(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4호, pp. 113-127.

- 조수진(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송미(1999). 한·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고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실(2001). 애착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pp. 179-189.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349-361.
- Chemers, M. M. , Hu, L., & Garcia, B. F.(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y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3*, pp. 55-64.
- Connor, K. M., Davidson, J. R.(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pp. 76-82.
- Constantine, N., & Benard, B.(2001).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 resilience assessment module technical re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28*, pp. 122-140.
- Criss, M. M., Pettie G. S., Bates, J. E., Dodge, K. A., Lapp, A. L.(2002). Family adversit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xternalized behavior: Longitudinal perspective on risk and resilience. *Child Development, Vol. 73*, pp. 1220-1237.
- Day, S., and Rottinghaus, P.(2003). The healthy personality. In W. B. Wash(Ed.), *Counseling psychology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Mahwah, NJ: Erlbaum.
- Dumont, M., & Provost, M. A.(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s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8, pp. 343-363.

- Fergusson, D. M., & Lynskey, M. T.(1996). Adolescent resiliency to family advers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7*, pp. 281-292.
- Fry, P. S.(1995). Perfectionism, humor, and optimism as moderators of health outcomes and determinants of coping styles of women executives. *Genetics,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Vol. 121*, pp. 211-245.
- Garmez, N.(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s, Vol. 20*, pp. 459-466.
- Gartner, J., Larson, D. B., & Allen, D. D.(1991). Religious commitment and mentalhealth: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Vol. 19*, pp. 7-19.
- Gelso, C. J., and Woodhouse, S.(2003). Toward a positive psychotherapy: Focus on human strength. In W. B. Wash(Ed.), *Counseling psychology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NJ: Erlbaum.
- Halanmandaris, K. F., & Power, K. G.(1999). Individual differences,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the examination stress: A study of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first year hom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26*, pp. 665-685.
- Heller, S. S., Larrieu, J. A., D'Impero, R., & Boris, N. W.(1999). Research on resilience to child maltreatment: Empirical considerations. *Child Abuse and Negligence, Vol. 4*, pp. 321-338.
- Herman-Stahl, M., & Pertersen, A. C.(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connection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5*, pp. 649-665.
- Kennedy, M. E., % Donaldson, G. A.(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8*, pp. 479-486.
- Kim-Cohen J., Moffitt T. E., Caspi, A., & Taylor, A.(2004).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in young children's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o

- socioeconomic deprivation. *Child Development*, Vol. 75, pp. 651-668.
- King, P. E., & Furrow, J. L.(2004). Religion as a connection for positive development: Religion, social capital, and moral outcom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0, pp. 703-713.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1990). Adolescence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68, pp. 561-565.
- Luthar, S. S.(1999).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pp. 543-562.
- Luthar, S. S., & Zigler, E.(1991).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61, pp. 6-2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pp. 227-238.
- Masten, A. S., & Coatsworth, J. D.(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pp. 205-220.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11, pp. 143-169.
- O'Donnell, D. A., Schwab-Stone M. E., & Muyeed, A. A.(2002). Multidimensional resilience in urban children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Child Development*, Vol. 73, pp. 1265-1282.
-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6, pp. 1-11.

- Oshio, A., Kaneko, H., Naganime, S., & Nakaya, M.(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 *Psychological Report, Vol. 93*, pp. 1217-1222.
- Revich, K., Schatté, A.(2002). *The Resilience factor*. N.Y: Broad Books.
- Richters, J. E., & Martinez, P. E.(1993). Violent communities, family choices and children's chances: An algorithm for improving the odd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5*, pp. 609-627.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157-171.
- Rutter, M.(1999). Resilience concepts and finding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y.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21*, pp. 119-144.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Orthopsychiatry, Vol. 57*, pp. 316-331.
- Rutter, M.(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Vol.3,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Savickas, M. L.(2003). Toward a taxonomy of human strength: Career counseling's contribution to positive psychology. In W. B. Wash(Ed.), *Counseling psychology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Mahwah, NJ: Erlbaum.
- Seligman, M.(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Simon & Schuster.
-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On happiness, excellence,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American Psychologists, Vol. 55*, pp. 7-8.
- Shiner, R. L., Masten, A. S., & Tellegen, A.(2002).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in emerging adulthood: Childhood antecedents and concurrent adap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3*, pp. 1165-1177.
- Smith, C.(2003). Theorizing religious effects among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42, pp. 7-30.

Werner, E. E.(1995).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3, pp. 81-85.*

Werner, E. E., and Smith, R. S.(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Werner, E. E., and Smith, R. S.(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ABSTRACT

The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 The Effects of Resilience Factors and Risks

Lee, Harrio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resilience factors and the risks undergone by students during college adjustment. 415 first-year students were group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resilience factors and risks. College adjustment was analyzed in terms of psychological-emotional, academic, and college environmental factors, measured by MMPI scores, accumulated credits for 2 years and registration rat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revealed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registration rate among the groups. In the area of academic adjustment, groups with high resilience facto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ccumulated credits than the groups with low resilience factors. The analysis of MMPI scores proved that each scale, with the exception of Mf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dicating that resilience factors rather than risks have an effect on the degree of psychological-emotional adjust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resilience factor, risk, college life, psychological-emotional adjustment, academic adjustment, college environmental adjustment

투고일 : 3월 16일, 심사일 : 6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9일

* Korea Nazarene University

